제시 리버모어의 주식매매하는 방법

1. 정확한 시점에 거래를 시작하라.

이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정확한 거래시점이 올 때까지 진입을 늦추라는 것과 한번 포착된 수익은 최대한 거두라는 것으로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확한 시점이란 결국 추세와 맞서지 말고 추세와 동행하라는 말이다.

2. 한번 형성된 추세에서 피라미딩(포지션 늘리기) 전략을 선택하라.

3. 에버리징(물타기)을 하지 말고, 진입 후 성과가 좋지 않다면 바로 손절매해 위험을 회피하라.

4. 주변부의 종목 또는 저가주를 매매하기보다 경제 및 산업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주도주 매매에 집중하라.

5. 정보에 의한 매매보다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모멘텀에 따른 종목을 선택하라.

[어느 주식투자자의 회상] -에드윈 르페브르

오늘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에 일어난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바보는 항상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식시장에는 오직 한 가지 면만 있다.

그것은 강세론이나 약세론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서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실패한 거래에서 배운 것은 물려서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앞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은 잘못 판단했을 때 손절매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우유부단해지지는 말아야 한다.

나는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있으리라 믿었고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큰돈을 벌 수 없다.

나는 경험에 의해 아무도 나 자신의 판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몽땅 날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큰 돈을 벌려면 전체 시장과 그 추세를 파악하라

나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준 것은 나의 머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던 덕분이었다.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다.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동시에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주식시세표에 의지하는 투기자의 문제점은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투기라는 게임은 수학적 계산이나 정해진 규칙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가지표를 읽기 위해서도 단순한 산수 계산 이상이 필요하다.

내가 주식의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나는 그 행동을 보고 어떤 주식이 전례를 따를 것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만일 어떤 주식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진단을 할 수 없으면 예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예상을 할 수 없으면 수익을 낼 수 없다.

솔깃한 정보보다는 나 자신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추세매매의 핵심인 피라미딩 전략을 구사하라

매수를 하기에 주가가 너무 높다거나 매도를 하기에 주가가 너무 낮은 법은 없다.

나는 종종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주식을 사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말해 왔다.

요령은 최저가에 매수를 하거나 최고가에 파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사거나 파는 것이다.

약세장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주식을 팔 때는 그전의 매도가보다 낮아야 한다.

매수를 할 때는 그 반대로 상승장에서 해야 한다.

나는 하락세에 있는 주식은 사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산다.

나는 주식을 너무 싼 가격이나 너무 쉽게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한꺼번에 사지 말고, 때를 기다렸다 팔 수 있을 때 팔아라

매수를 하기에 주가가 너무 높다거나 매도를 하기에 주가가 너무 낮은 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지만 첫 거래 후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거래를 하지 말자.

기다리면서 지켜보자.

주가지세표를 읽다 보면 거래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하는 말은 항상 피라미딩 기법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피라미딩 기법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주식투기를 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식을 한꺼번에 사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주식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사지 말라는 것이다.

큰 돈은 시장의 흐름 속에 있다.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을,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을 취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나는 큰돈은 시장의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처음에 무엇이 발단이 되어 시작됐든지 간에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은
금융가들의 주가조작이나 인위적인 시장개입의 결과가 아니라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장세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누가 거슬러 가든지 간에 그
자체의 추진력에 따라 멀리, 신속하게, 그리고 오래 지속된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연구하는 것은 다음 거래에 항상 도움이 됐다.
그래서 결국 약세장에서 곳곳이 버티는 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주가시세표를
읽으면서 적절한 시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작을 잘하면 포지션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지 않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만일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달 만에 세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빈털터리가 된다.

현명한 투자자는 1년 먼저 시장을 내다본다
이론과 실재가 함께해야 한다.
투기자는 단지 학생이 아니라 학생이면서 투기자가 돼야 한다.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정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투기자의 최대의 적은 항상 자기 내부에 있다.
희망과 공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인간적 본성이다.
거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뿌리깊은 본능과 싸워야 한다.

실수를 인식하는 것은 성공에 대해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처벌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어떤
처벌과 연결시키면 두 번 다시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우리의 호주머니와 허영이라는 두 가지 약점을
건드린다.

주식 투기자는 때로 실수를 하면서 자신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수를 하고 나서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 처벌의 고통이 가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실수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실수를 했는지 알 수는 있지만,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모른다. 그러면 그는 단지 자신을 욕하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도 운이 좋으면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실수와 비슷한 수만 가지 실수 중에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모른다.

실수의 가문은 엄청난 대가족이어서 우리가 바보짓을 하려고 하면 언제라도 누군가 옆에서 거들어 준다.

주가시세표를 현명하게 보는 방법

주가시세표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디에서나 똑같다.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만일 질문을 하고 상황을 고려한다면 답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해답만 찾는다.

평소에 하던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게임에 뛰어든다. 중저가의 자동차를 살 때보다도 생각을 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전 재산의 절반을 건다.

주가시세표를 읽는 문제는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물론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좀더 중요하다.

주가시세표를 읽는 것은 운세를 보는 것과는 다르다.

주가시세표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35분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 목적은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언제 거래를 할 것인지, 팔아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장-시세표에 기록되는 가격의 진로-을 지켜 보는 목적은 한 가지, 즉 방향-가격의 경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가격은 저항을 만나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가격은 저항이 가장 적은 쪽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락보다 상승에 대한 저항이 적으면 가격이 상승한다.

시장이 순조롭게 출발하면 그 후에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에 대해 당황할 필요는 없다.

열린 마음과 분명한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추세가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사실을 이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시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살 것인지 팔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된다.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매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평소처럼 위로는 130, 아래로는 120까지 1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자.

바닥에서는 시장이 약세로 보이고 8~10포인트까지 상승하면 강세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주가 시세표가 때가 됐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어떤 상품이 싸게 보인다고 사거나 비싸게 보인다고 팔거나 해서 돈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기자는 투자자가 아니다.

투기자의 목적은 투자한 돈에 높은 이자율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등락에 의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를 하는 순간 최소 저항선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한다.

주가지세표를 읽으면 130에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며 뒤따라 조정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할 때 어설피게 주가지세표를 연구하는 학생들은 15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다.

하지만 조정이 시작되면 계속 보유를 하거나 손절매를 하거나 아니면 공매도를 하고 약세론을 이야기한다.

120에서는 하락에 대한 좀더 강한 저항에 부딪친다.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세할 때 반등이 오면 공매도를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급히 서두르면 영원히 교훈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마침내 상승이나 하락의 힘이 증가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최대 저항점이 위나 아래로 움직인다.

즉 130에서 매수세가 처음으로 매도세보다 강해지거나 120에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해진다.

가격은 오래된 장벽을 돌파해서 계속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120이 되면 시장이 약세로 보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거나 130이 되면 시장이 강세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그리고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 후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거나 정리를 해버린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들은 최소 저항선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도움을 준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저항선을 판단하는 똑똑한 투자자들은 기본적인 거래환경 뿐 아니라 잘못 추측했다가 실수를 수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거래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들의 수정거래는 최소 저항선을 따라 가격을 밀고 가는 경향이 있다.

나는 최소 저항선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했다.

그 후에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중개인의 말은 흘려버리고 계속

보유를 했다.

그 회사의 이사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거나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 시세표가 말하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주가 시세표는 "상승 중"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주식 배당으로 인해 주가가 30포인트 상승했다.

164는 충분히 높아 보였지만 주식은 매수하기에 너무 높거나 매도하기에 너무 낮은 법은 없다. 주가 자체는 최소 저항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실제로 만일 내가 말한 대로 거래를 해보면 하나의 시장이 마감되고 다른 시장이 열리는 사이에 나오는 중요한 소식들은 보통 최소 저항선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장의 추세는 그러한 소식들이 발표되기 전에 확립된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약세론이 무시되고, 강세론은 과장된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거래시 특히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라

주가 시세표를 보고 저항점을 수립하고 최소저항선을 따라가며 거래하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 즉 인간의 본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두 가지 힘이란 기본적인 상황과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을 말한다.

강세장에서는 약세 요인들이 무시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본성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한두 곳의 악천후로 밀 작황이 나빠져 일부 농민들이 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밀 농가에서 각자 수확한 밀을 운반하기 시작하면 강세론자들은 피해가 적은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약 세론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준 것을 알게 된다.

상품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어느 한 쪽의 의견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열린 마음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수확 조건이나 수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지 주가시세표가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좁은 시장에서 가격이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다음에 오는 큰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필요한 것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주가시세표를 읽고 가격의 범위를 정해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투기자는 주가시세표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 시장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한다.

주가시세표와 씨름을 하거나 이유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주식시장은 뒤늦게 부검을 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포지션을 확보하는 간단한 방법

나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단지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추가 시험을 통해 내 거래를 확인해서 심리적인 시기를 결정한다.

일단 거래를 시작한 후에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을 계속 지켜봄으로써 내가 거래한 것을 점검하는 것이다.

나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높은 가격에라도 매수를 하며 주가가 떨어질 때는 낮은 가격에라도 공매도를 한다.

자본금의 5분의 1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자.

만일 그것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잘못 시작한 것이므로 더 이상 거래량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처음에 손실을 보면 나는 빠져나갈 것이다.

판단을 잘못 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 했을 수 있다.

출발을 잘못하면 수익을 올릴 수 없음을 명심하자.

내가 4 ~ 5만주를 거래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나는 주가시세표를 연구하면서 매수나 매도의 기회를 지켜볼 것이다.

최소 저항선이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만 주를 매수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만일 시장이 내가 처음 산 가격보다 10포인트가 더 오른다면 다시 1만 주를 살 것이다.

그리고 20포인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2만 주를 더 살 것이다.

그것은 내 거래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항상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거래해야 한다.

거래를 늘려가기 위한 과정에서 확인거래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값비싼 시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진짜 움직임이 시작된 후, 정확하게 적절한 시간에 거래를 축적하기 시작하자 시험거래로 봤던 손해는 금방 만회가 됐다.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잘하면 항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나만의 투자기법이다. 이기는 게임에 큰돈을 걸기 위해 작은 시험 비용을 지불한다는 간단한 이론이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 투기에서는 치명적이다.

나는 때로 투기는 불편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 투기에서는 치명적이다.

보통 그러한 인간적 약점들은 친구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한다.

또는 주식거래처럼 위험하지 않은 다른 모험에서는 알아서 그런 약점들을 경계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투기자의 최대의 적은 항상 자기 내부에 있다.

희망과 공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인간적 본성이다.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점점 더 손해를 본다.

그리고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면 언제 수익이 날아갈지 몰라서 너무 빨리 정리를 한다.

두려움은 마땅히 벌 수 있는 만큼 벌지 못하게 한다.

거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뿌리깊은 본능과 싸워야 한다.

자연스러운 충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거꾸로 가야 한다.

희망이 갖고 싶을 때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움이 느껴질 때 희망을 가져야 한다.

손실이 더 큰 손실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수익이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야 한다.

주식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주어진 시간에 한 종목이나 여러 종목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회가 문 앞에 와서 기웃거릴 때 그것을 잡으려면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투자자는 돈보다 행동에 더 집중한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 초심자들과는 아주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그 차이가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것이다.

투기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잃는 것은 사물을 보는 방법에 달려 있다.

아마추어들은 자신의 노력을 과대평가한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자만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깊지 못하거나 소모적이다.

반면 프로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에 집중한다.

다른 일들을 보살피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훨씬 더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즉 통찰력이 필요하다.

남에게 절대로 설득 당하지 마라

설득을 당하면 자신의 신념과 정반대로 행동하지는 않더라도 불확실하고 우유부단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확신을 갖고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 없다. 독창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설득력 있는 인물에 의해 공격을 받기 쉽다. 나는 탐욕과 두려움과 희망 같은 투기의 공통적인 약점에 상당히 면역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흔들리곤 한다. 투자자는 명석한 머리로 그럴듯하게 말하는 매력적인 사람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는 내 자신의 한계와 사고 습관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다른 이유는 같은 실수를 두 번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수에 대해 변명을 하려면 다음번에는 그 실수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어야 한다.

모든 투자의 실수 중에서 손실을 평준화하려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다.

주식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갑작스럽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단지 돈을 벌어볼 희망을 할 뿐이다.

그것은 도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연구한 후에 논리적으로 도달한 의견이나 믿음에 따라 투자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무엇보다 당장 수익을 쫓기 때문에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시장이 당장 고분고분 따라주기만을 기대해야 한다.

그는 공정한 내기를 하는 것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고 떠벌인다.

이를테면 2포인트만 벌면 되므로 2포인트만 잃으면 끝내겠다고 한다.

또한 재빨리 움직일 준비가 돼 있으므로 가능성이 50 대 50이라고 착각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강세장에서 조정을 받기 전에 최고가로 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돈을 잃는 것을 여러 번 봐 왔다.

절대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 도덕적인 의무는 필요치 않다

도덕적인 의무는 주식시장에서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가시세표는 기사도 정신과 관계가 없으며, 충성심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투자자에게 자만은 치명적이다.

투기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때때로 투기자가 자만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만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비싼 대가를 요구하지만 특히 주식시장의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이다.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면 그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라

내가 다른 걱정을 하는 한 주식시장에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강세장에서 마음껏 공격적 투자를 해야한다

강세론이나 약세론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투기자의 관심은 올바른 판단에 뒤야 한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시장은 단 한 번의 화려한 불꽃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으로 불꽃이 꺼지는 것도 아니다.

시장은 주가가 일반적으로 내려가기 오래전에 강세장이 끝날 수도 있다.

마침내 오래 기다리던 경고 신호가 왔다.

시장의 주도주들이 차례로 고가에서 몇 포인트씩 떨어진 후-몇 달만에 처음으로-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주식들이 분명 이탈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론은 아주 단순하다.

강세장에서는 모든 주가가 상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추세를 거슬러가는 주식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주가시세표가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강세론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강세론자가 되고, 약세장이 시작될 때 약세론자가 되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느 한쪽과 백년해로하는 것은 금물이다.

최고가에서 팔지 말아야 한다.

그런 행동은 현명하지 않다.

주가가 조정을 받은 후에도 상승하지 않으면 그때 파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정책에 맞서면 안 된다

오로지 사실에 충실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

투기의 위험 요소 목록 중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은 맨 위에 위치한다.

나는 예견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돈을 잃으면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그 자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박이며 내가 예지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일은 참을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객장을 전장에 비유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사업을 투쟁이라고 비유한다. 그러한 표현은 근사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잘못 표현된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투쟁이나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개인이나 투기세력과 싸우지 않는다.

단지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그들과 다를 뿐이다.

나는 오로지 사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때때로 나는 사실을 충분히 분명하게, 충분히 일찍 보지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돈을 잃는다.

내가 틀린 것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꼭 치르게 된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실수에 대한 대가를 회피하지 않는다.

실수에는 예외나 면제가 없다.

어떤 조작도 가격을 폭락시킬 순 없다

비밀정보에 따르기보다 직접 연구하고 판단하라

정보를 주는 사람은 정보의 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보를 찾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정보가 아니라 아무 정보라도 구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는 지식을 쌓고,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의 훈련은 의학교육과도 같다.

의사는 몇 년 동안 수십 가지 관련 학문들을 배운 후 평생 경험을 쌓아간다.

관찰, 경험, 기억, 수학에 근거해 투자하라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경험은 전달할 수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도 충분히 신속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돈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찰, 경험, 기억, 수학 등에 의지해야 한다. 정확하게 관찰해야 할 뿐 아니라 관찰한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비이성적인 것이나 예기치 않은 것에 기대를 걸면 안된다.

항상 개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을 쌓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항상 기억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뜻밖의 일이 발생해도 순간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뛰어난 수학적 능력과 비상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도 경험과 기억이 없다면 투기에서 실패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태도가 습관이 되고 거의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전문가적 태도를 취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식시장에서는 수학을 바탕으로 돈을 번다.

사실과 숫자를 다루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투자자는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하며 모든 시장과 모든 발전에 대해 철저하게 프로다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

관찰은 최고의 정보를 주고, 경험은 이익배당을 준다

경험은 내게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이 투기자에게 훌륭한 지침이란 것을 가르쳐줬다. 그것은 환자의 체온과 맥박을 재는 것과 같다.

때로는 어떤 주식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 다음에 경험은 개연성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올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

예를 들어 모든 주식은 한 길로 함께 움직이지 않지만, 같은 그룹의 주식들은 강세장에서 동반상승하고 약세장에서 동반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투자에서 상식에 속한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같은 그룹의 주식 중에서 뒤쳐지는 주식을 거래하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거래상황과 전망은 동일 그룹의 모든 주식에 똑같이 작용하며, 호황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룹의 추세를 거슬러가는 종목은 매수하지 마라

나는 강세장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마땅히 움직여야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주식은 사지 않는다.

때로 명백한 강세장에서 주식을 샀다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 다른 주식들이 상승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팔아버렸다.

왜?

내 경험에 의하면 그룹의 추세에 거슬러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게임만 할 수는 없다.

개연성을 계산해서 예상을 해야 한다.

그룹의 선도주를 따라가지 않는 주식은 조심해야 한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나중에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고 신호는 주가하락 이전에 분명히 있었다.
나는 주가하락이 아니라 경고신호를 찾는다.
주식시장에서 그룹의 움직임을 연구하라
경험과 기억이 손실을 만회하는 힘이 된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영리함이나 자만심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믿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장 전체의 기본적 상황에 따라야 한다
투자자의 용기는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자신과 자신의 판단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투자자의 용기는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자신감이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판단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다. 사실 경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주어진 시기의 시장 진로가 아니다.
포지션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주가상승이나 주가하락이 지닌 특성이다.
그러한 특성을 알면 성공할 수 있다.
만일 실패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실수 때문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자신의 판단에 충실하라
성공적 주식투기의 원칙들은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미래에도 계속
저지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주가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주가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충분히 큰 수익이 가능할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다.

보통사람들은 주당 12달러나 14달러였던 주식이 갑자기 30달러로 올라가면

5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와 주가를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다.

즉 주가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가에서 사지 못한 아쉬움을 대신 현금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달래려고 한다.

활황 장에서는 처음에 대중이 얻는 평가 이익이 가장 크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가 이익일 뿐이다.

어리석은 이기주의자보다는 영리한 이타주의자가 돼라

화를 낸다고 되는 일은 없다.

투자자에게 분노는 죽음과 같다.

익명의 내부자들이 하는 설명을 무조건 믿지 말라

유용한 정보는 대중들 사이에 감춰져 있다.

모든 개별 주식의 상승에는 주가조작이 개입되며, 그런 상승을 유도하는 내부자들은 최대한 이익을 남기고 주식을 매도하는 게 목적이다.

주식시장에서 재난은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 우리 자신의 탐욕, 어떤 사람의 허영심, 두려움이나 터무니없는 희망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성이라는 적과는 별개로 주식 투자자는 상업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관행이나 악습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많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다.

사람들은 항상 우물쭈물하다 돈을 잃는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무지, 탐욕, 두려움, 희망이다.

세상의 어떤 성문울과 시장의 규정도 인간으로부터 이러한 적들을 제거할 수 없다.

냉철한 경제학자들이나 인정 많은 박애주의자들이 만드는 규정으로도 우연한

사고가 일어나서 용의주도한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막지 못한다.
또 다른 손실의 원인은 단순한 정보와 구별되는 의도적인 오보다.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욱 교활하고 위험하다.

유용한 정보는 대중들 사이에 감춰져 있다

투자에 대한 연구와는 전혀 별도로 주식 투자자는 어디에서나 어떤 사실에 대해
주식시장 안에서의 게임과 관련해 생각해야 한다.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개별 주식의 상승에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주가조작이 개입되며,
그러한 상승을 유도하는 내부자들의 목적은 최대한 이익을 남기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가 하락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약세론자들 때문이 아니다

강세장에서, 특히 활황장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벌고 나중에 잃는 이유는
강세장에 너무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약세론자의 습격에 대한 이야기를 믿기 때문이다.

대중은 익명의 내부자들이 하는 설명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주식 시장이나 다른 어디에도 성공에 이르는 탄탄대로는 없다.

게다가 추가로 교통을 정체시키는 것들을 피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시장정보는 오류가 불가피하다

주식시장은 항상 현 상황보다 6 ~ 9개월 정도 앞서 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지나치게 역점을 두지는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 6 ~ 9개월 후에도 같은 수익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지금의
수익에 근거해서 중개인들이 고객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만일 선견지명이 있어서 상황이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충분히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저가주에 대한 논쟁은 사라질 것이다.

투자자는 앞을 내다보아야 하지만 중개인은 지금 당장 수수료를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정보는 오류가 불가피하다.

내부자들의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라

대중은 소위 약세론자의 습격으로 원래의 가치 이하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익명의 내부자 조언에 의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는 바람에 더 많은 돈을 잃는다.

대중은 항상 주식 투자의 기본요소를 영두에 뒤야 한다.

어떤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복잡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지속적인 매수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폭의 자연조정을 시시각각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하다.

하지만 어떤 주식이 오랫동안 꾸준히 상승한 후에 돌아서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때로 작은 변동이 있다고 해도 최소 저항선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변한 것이 분명하다.

그럴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 하락에는 매우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 이유들은 단지 몇 사람만 알고 있고 비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 게임에서는 진실을 아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서 결코 진실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위 내부자들이나 공식적인 진술의 상당수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때로는 시장과 관계 있는 누군가가 꾸며내기도 한다.

어떤 주식의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내부자들은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내부자는 큰손들에게 적당한 매수시점을 말해줄지는 몰라도 매도시점은 말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큰손들도 대중들과 같은 입장에 놓인다. 이때 가장 영터리 정보를 받기가 쉽다.

어떤 시점에 어떤 주식을 거래해서 돈을 벌 수는 있어도 항상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투자는 100퍼센트 안전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노련한 투기자라도 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은 내부자 정보가 전염병, 흉작, 정치개편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식 매매하는 법

주식투자의 비결은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옳았을 때 큰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항상 무지, 공포, 희망, 탐욕을 경계하고, 관찰력, 기억력, 수학적 계산능력, 경험을 갖춰야 한다. 또한 시장은 틀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말고 철저히 시장에 순응해야 한다.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이 직접 기록하라.

기록과 연계해 정확하게 시간요소를 평가한다면 중요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매번 돈을 벌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투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매혹적인 게임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 정서가 불안한 자, 한탕주의자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가난뱅이로 죽게 된다.

성공의 열매는 각자 스스로 기록하고, 생각하고,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정직하고 진지한 노력에 정비례한다.

투자를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사업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만일 투자를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정보자료를 입수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배우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있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경마에서 한 번 이길 수는 있지만 경마 자체를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때가 있지만 매번 돈을 벌 수는 없다.

무모한 사람이나 그런 기대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주식에 대해 예상했다면 너무 성급히 뛰어들지 마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해야 한다.

투자는 다가오는 움직임은 예상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정확한 예상을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시장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사람들은 종종 예측불허이기 때문에-지나치게 감정적이기 때문에-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투자자들은 항상 참을성을 갖고, 시장이 자신의 판단을 확인해줄 때를 기다린다.

예를 들어 어떤 뉴스가 발표되면 그로 인해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스스로 분석해본다.

특별한 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결과를 예상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분명히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 같다고 예상해도 시자의 움직임으로 그 예상이 확인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다.

실제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자.

예상이 맞거나 틀리거나, 약간 늦게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분명한 추세에 있는 후에는 호재나 악재가 되는 뉴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다. 시장이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뉴스도 무시되기가 쉽다. 이럴 때 지금까지 비슷한 조건하에서의 수행 기록이 있다면 투자자나 투기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개인적인 예상은 접어두고 시장 자체의 움직임을 골똘히 주시해야 한다.

시장은 틀리는 법이 없다.

사람들의 예상이 종종 틀릴 뿐이다.

투자자에게 시장이 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 개인적인 예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어떤 개인이나 일군의 사람들이 시장을 조작하거나 붕괴시킬 수 없다.

사람들은 어떤 주식에 대해 예상하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예상이 옳을 수 있다.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한다면 돈을 잃을 것이다.

결국 거래를 한 후에 시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주식에 대해 나름대로 예상을 한 후에는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기다리면서 그 주식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한다.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을 취하자.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현재 25 전후로 거래되고 있으며 상당기간 동안 22 ~ 28 범위에서 가격이 형성됐다고 하자.

만일 그 주식이 마침내 50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28 ~ 29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

28을 넘어가면 당신의 예상대로 그 주식은 확실한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다.

초기에 손절매해서 손실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경우는 '출발부터 수익을 기록한 거래'이다.

심리적인 시간(psychological time)에 첫 거래를 해야 한다.

심리적 시간이란 어떤 주식을 움직이는 힘이 워낙 강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를 의미한다.

투자는 포커나 브리지 같은 카드게임과 매우 비슷하다.

우리는 매 게임마다 돈을 걸려고 하고 브리지를 하면 당연히 완승을 거두고 싶어하는 공통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이러한 인간적 약점은 투자자에게 최대의 적이며, 결국 파멸로 몰아가는 원흉이다.

희망이 있으면 두려움을 함께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투자 사업에 희망과 두려움을 주입하면 매우 위태로워진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감정을 혼동하고 반대로 행동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주식이 적절하게 움직이고 시장이 활발하다면 서둘러 이익을 취하지 말자.

당신은 판단을 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안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계속 가야 한다.

시장의 움직임에 어떤 우려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용기를 갖고 계속 유지하자.

반면 어떤 주식을 매수했는데 다음날 손실이 일어났다고 하자.

아마 당신은 다음 날 그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상황을 일시적 조정으로 여기고 다음 날은 손실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는 걱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첫 날의 손실은 다음 날 다시 그만큼의 손실로 이어지거나 다음 주나 그 다음 달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지금 매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손절매를 해야 한다.

수익은 항상 자기 앞가림을 하지만 손실은 그렇지 못하다.

투자자는 초기에 손절매를 해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해야만 계좌를 유지해서 향후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거래에 성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자기 자신의 보험중개인이 되어야 하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장에 대한 판단이 정확할 때 거래할 수 있도록 큰 손실을 입지 않고 종자돈을 지켜내야 한다.

주가 움직임을 기록하고 나름의 거래 규칙을 가져라

나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거래를 해야 하며, 또한 어떤 원칙에 의해 첫 거래시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어떤 주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분명히 있으며, 투자자의 본능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초의 거래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추측만으로는 투기에 성공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사용하는 어떤 지침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지침도 100퍼센트 옳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애용하는 지침이 있다며누나는 그 지침을 사용할 때의 결과에 대해 알고 있다.

따라서 만일 예상대로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다. 며칠 후 그 지침이 다시 시장에 들어가라고 가리키면 나는 돌아갈 것이고 이번에는 100퍼센트 옳을지도 모른다.

시간을 갖고 열심히 주가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미래의 운용이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 열심히 기록을 한다.

내가 기록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방식이 나에게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기록이 실제로 시장에 다가오는 중요한 움직임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시간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한 뒤부터였다.

한 가지 주식이나 여러 주식들과 친해지고 기록과 연계해서 정확하게 시간요소를 평가한다면 조만간 중요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기록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어떤 산업에서 주도주를 고를 수 있게 된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직접 기록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면 안 된다.

직접 기록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 아이디어들은 아무도 줄 수 없는 자기의 발견이고 비밀이며,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

비자발적인 투자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투자자들은 종종 주식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주가변동이나 마진 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투기를 하지 않는다.

투자를 위해 주식을 산다.

주가는 내려가도 결국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수할 때 훌륭한 투자로 생각했던 많은 주식들이 나중에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소위 투자주식은 종종 순전히 투기가 된다.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투자의 의미는 투자원금과 함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처음에 영구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하면서 미래에 수익창출능력을 위태롭게하는 새로운 조건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가치가 한참 떨어진 후에야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성공적인 투기자가 투기 모험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투자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투기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우량주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가치가 없거나 사라진 주식들이 얼마든지 있다.

훌륭한 투자로 생각했던 주식들이 폭락했고 그와 함께 소위 보수적 투자자들이 파산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돈을 잃어왔다.

하지만 나는 투기를 해서 잃어버리는 돈은 사실 투자자들이 투자를 방치해서 잃어버리는 돈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내 눈에는 이런 투자자들이야말로 배짱이 두둑한 도박사들로 보인다.

그들은 판돈을 걸고 버티다가 잘못되면 왕창 잃어버린다.

투기자 역시 투자자와 같은 시간에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영리한 투기자라면- 만일 기록을 한다면- 상황이 좋지 않다고 경고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즉각 행동을 취해 손실을 줄이고 더 나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시장에 다시 들어갈 것이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주식시장이 광범위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염두에 뒀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서 안 된다.

주식이 10에서 50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때 주식시장의 호재와 훌륭한 기업경영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이 50에서 150까지 가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거꾸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수준이 낮게 보인다고 해도 가치에 비해 주가가 여전히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투자시점과 자금관리를 결합한 공식을 기초로 연구하자.

나는 거래 기록을 보며 상승추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주식이 정상조정을 보인 후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곧바로 매수를 한다.

왜냐하면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나의 기록이 계속 전진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나는 조정 장세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지침은 첫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추격 거래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즉 손실을 몰타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언제나 명심하기 바란다.

주식이 적절하게 움직일 때는 언제인가?

시장은 절대 정지해 있지 않다.

소폭의 조정은 정상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주식은 사람처럼 인격과 개성을 갖고 있다.

어떤 주식은 신경질적이고 불안하고 변동이 심하며, 또 어떤 주식은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논리적이다.

노련한 투기자는 주식의 특성을 알고 존중한다.

주식의 움직임은 다양한 조건하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

시장은 절대로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는다.

때로는 움직임이 부진해지기도 하지만 한 가격에 머물지 않고 소폭이나마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주식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하면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인다.

움직임이 시작될 때는 며칠 동안 주가가 오르면서 대량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정상조정이 일어난다.

이때 거래량은 며칠 동안 상승할 때보다 훨씬 줄어든다.

소폭의 조정은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지만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는 경계를 해야 한다.

하루이틀 후에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만일 본격적인 움직임이라면 얼마 가지 않아 자연적인 정상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매일 조금씩 조정이 있더라도 이 움직임은 며칠 동안 강력하게 지속된다.

조만간 또 다른 정상조정을 받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때는 첫 번째 조정과 같은 식으로 움직인다.

분명한 추세에서는 모든 주식이 자연히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초반부에는 직전의 고점과 다음 고점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50에 산다고 하자.

그 주식은 첫 구간에서 서서히 54까지 올라간다.

하루이틀 정상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52가 된다.

3일 후에 다시 상승을 해서 다음 정상조정이 일어나기 전에 59 또는 60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그 수준에서의 자연조정은 1이나 1.5가 아니라 3도 쉽게 될

수 있다. 며칠 후에 상승세를 회복했을 때는 거래량이 상승 초기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만큼 그 주식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상승세는 전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자연조정을 만나지 않고 60에서 곧바로 68이나 70까지 갈 수 있다. 정상조정 또한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65까지 내려가도 여전히 정상하락에 불과할 수 있다. 조정폭이 5 정도였다고 해도 오래지 않아 상승세를 회복해 새로운 신고가로 거래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시간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주식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상당한 수익을 얻은 후에는 참을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 위험신호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어느날 6이나 7까지 상승하고 다음날은 아마 8 ~ 10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그날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7 ~ 8이 비정상적으로 급락한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1 정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강세로 마감을 한다. 하지만 그 다음날은 무슨 이유인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급박한 위험신호다.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자연조정과 정상조정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에 없었던 비정상적 조정-하루만에 6 이상의 급격한 조정-이 일어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신호로 보면 된다. 자연조정 내내 인내심을 갖고 주식을 지켰으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위험신호를 존중하고 길에서 비켜서야 할 때가 됐다.

이러한 위험신호가 항상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규칙도 100퍼센트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규칙들에 시종일관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국은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천재적인 투기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위험신호가 보일 때

그것과 언쟁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죠! 며칠 후에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면 다시 들어가지요. 그래서 많은 걱정과 손실을 덜 수 있었죠. 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기찻길을 따라 걸다가 고속열차가 시속 60마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도 기찻길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바보겠지요. 기차가 지나간 후에 원하면 얼마든지 기찻길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항상 이 장면을 선명하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기자라면 위험신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투기자들은 매도를 해야 할 때 그들 내면에 있는 뭔가가 충분한 용기를 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주가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 "다음 번에 주가가 다시 오르면 빠져나가야지!" 그리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그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시장이 다시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상승은 일시적일 뿐이고 시장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여전히 망설이면서 그대로 남아 있다. 만일 그들에게 어떤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줄 것이고 많은 손실과 걱정들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면은 투자자나 투기자에게 가장 큰 적이다

다시 말해두지만 일반투자자나 투기자에게는 인간적인 면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주식이 크게 올랐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언젠가는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때에 맞춰서 오를까? 그럴 확률은 희박하며 만일 그렇다고 해도 망설이는 타입의 투기자는 그런 기회조차 이용하지 못한다.

내가 투기를 진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점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또는 매주 투기를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 거래를 해도 좋은 시점은 1년에 겨우 몇 번 아마 4 ~ 5번 정도 밖에 없을 것이다.

평소에는 다음에 올 큰 움직임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자. 그러다가 때맞춰 거래를 시작한다면 출발부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가 위험신호가 보이면 옆으로 비켜서 차익을 실현해야 한다.

기억하자, 당신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매일매일 매매해야 한다고 느끼는 투기자들이 당신의 다음 모험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그들의 실수에서 이익을 거둬들일 것이다.

투기는 지나칠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증권사를 뺏질나게 드나들거나 전화통에 온종일 매달려 있거나, 저녁 모임에 나가 친구들과 시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세단말기나 객장의 호가판이 항상 머릿속에 있다. 그들은 사소한 등락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가 큰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

대다수의 투기자들은 광범위한 추세변동이 진행될 때 잘못 거래를 하거나, 매일 소폭의 등락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다음에 오는 중요한 변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런 약점들은 주가변동을 기록해서 연구하고, 시간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주식에 손대지 말고, 몇몇 주도주를 중점적으로 지켜보라
주식시장에는 한동안 성공을 거둔 후에 경솔해지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상식과 냉철한 사고가 필요하다. 확고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돈을 번 후에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주가는 항상 오르내린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이론은 "본격적인 움직임 뒤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주가변동 뒤에 있는 모든 이유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다가는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조건과 다투지 말고 무엇보다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시장 전체로 뺏어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한 번에 너무 여러 주식에 손을 대지 마라.

몇몇 주도주를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어느 산업의 주식이 일반적인 시장추세로 부터 진로를 완전히 바꿨다고 해서
전체 시장을 약세나 또는 강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내심을 갖고 다른 산업에서도 하락이나 상승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줄 때를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주식들도 같은 징후를 보일 것이다.

움직임에 대한 연구는 그날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들로 제한하자.

만일 주도주에서 돈을 벌 수 없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시장 전체가 아닌 몇몇 산업에 대해 분석하라

현재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산업의 주식들이 움직이면 시장 전체가 움직인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등장할 것이고, 오래된 주도주들은
일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변이
없을 것이다.

분명 한꺼번에 너무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머리가 복잡해져 혼란에 빠질 것이다.

몇몇 산업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것이 시장 전체를 해부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4대 산업에 속한 두 가지 종목의 경로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치 대장놀이를 하는 것처럼 모두 따라갈 것이다.

정신적인 융통성을 유지하자.

오늘의 주도주는 2년 후에 주도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내와 판단력을 갖고 적절한 행동 시기를 기다린다면 결국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영리한 투기자라면 대규모의 운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한된 수의 산업들과 그 산업들의 주도주들을 연구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뺀 법을 배울 것이다.

거래 후에 돈을 손에 직접 쥐어보라

투기자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감할 때마다 수익의 절반을 안전한 금고에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인출해 손에 쥐어봐야 한다.

손실을 몰타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돈을 지켜라

만일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거래를 한다면 그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그것은 당신의 돈이다.

그 돈은 당신이 지키고 있는 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릇된 투기는 돈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다.

손실을 몰타기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뭐 하러 멀쩡한 돈을 버리겠는가.

또 다른 날을 위해 자본금을 지키도록 하자.

잃을 것이 뻔히 보이는 거래보다 좀더 매력적인 거래에 돈을 걸어야 한다.

성공하는 사업가는 다양한 고객들과 신용거래를 하지만 한 고객에게 상품을 몽땅 파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객의 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분산이 된다.

마찬가지로 투기라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떤 한 가지 모험에 투기하는 자본금을 제한해야 한다.

투기자에게 현금은 상인의 선반 위에 놓인 상품과도 같다.

투기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그들은 2 ~ 3년이 아니라 두세 달 만에 자본금을 50퍼센트로 만들겠다고 덤벼든다.

그리고 어쩌다가 성공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무모한 투기자는 그 돈을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갑자기 굴러 들어와서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건강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투기자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

이런 투기자들은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험을 하다가 결국 어딘가에서 실수를 하고 화를 당한다.

가게나 상점을 오픈하는 사업가들은 첫해에 투자금의 25퍼센트 이상 벌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기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25퍼센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100퍼센트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투기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원칙 위에서 운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성공적인 거래 후에는 수익의 절반을 저축하라

투기자는 어떤 성공적인 거래를 마감할 때마다 수익의 절반을 안전한 금고에

모아두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투기를 해서 돈을 갖고 싶다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후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

투기자들은 보통 아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거나 초과 자산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면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는다. 또한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일 때는 모든 자금이 증거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한다. 아니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후에도 다음 번에는 두배로 벌겠다고 생각해 차익을 인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기꾼들은 돈을 구경도 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돈은 실재하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오랜 세월 성공적인 거래를 마감한 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훌륭한 규칙이다.

돈을 꺼내 세어보자.

나는 그렇게 해서 수중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돈은 실재했다.

증권계좌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은 직접 손으로 만지는 돈과 다르다.

손으로 만지는 돈은 확실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소유 의식은 애써 번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을 무릅쓰는 경향을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이따금 특히 거래 중간에 진짜 돈을 만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투기는 일종의 사업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져야 한다. 흥분이나 아첨이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된다. 중개인들은 때때로 본의 아니게 많은 투기자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중개인들은 거래를 부추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객들이 거래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벌 수 없으며, 거래가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아진다.

투기자는 거래를 원하고, 중개인은 거래를 환영할 뿐 아니라 종종 과다거래를 부추킨다. 무지한 투기자는 중개인을 친구로 생각하고 곧 과다거래를 한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전환점을 이용하라

전환점을 이용해 시장의 움직임을 예견할 경우 전환점이 지나간 후 엉뚱하게 움직이면 위험신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환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래하라

나는 시장이 소위 전환점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거래하면 어김없이 돈을 벌었다.

그 이유는 움직임을 시작되는 심리적 시간에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우려할 만한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개인적 지침이 나에게 지시를 내리면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에는 그냥 앉아서 시장이 움직이도록 내버려뒀다.

때가 되면 시장의 움직임이 내게 수익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배짱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마다 시장은 반드시 신호를 보냈다. 내 경험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이 시작될 때 들어가지 않으면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 어떤 움직임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일어나는 소폭의 등락을 견디면서 자리를 지키는 용기와 인내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익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시장이 내게 들어갈 때를 알려주는 것처럼 또한 확실하게 떠나야 할 때를 알려준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본격적인 움직임은 하루나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는다.

시장이 적절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48시간 동안 시장이 폭넓게 움직였다면 시장에 참여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추세에 있었고 40의 저점에 도달했다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상승하면서 며칠 후에 45가 됐고 일주일 동안 몇포인트 상관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49가 된다.

며칠 동안 시장이 침체되고 부진해진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3 ~ 4포인트가 내려가고, 하락을 계속해서 전환점인 40 근처에 도달한다.

바로 이때 시장을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그 주식이 본격적인 하락추세를 회복한다면 또 다른 중요한 상승세가 오기 전에 전환점인 40에서 3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다.

만일 4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장세에서 형성된 저가에서 3포인트가 오르자마자 매수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만일 40 이하로 떨어져도 3포인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43으로 오르자마자 매수를 해야 한다.

만일 위의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한 가지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 것이며, 만일 그 추세가 확실해지면 계속 상승해서 전환점인 49-3포인트 이상 오른-를 넘어갈 것이다.

나는 시장의 추세를 정의할 때 강세 또는 약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강세(bullish)라거나 약세(bearish)라는 말을 들으면 시장이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분명한 추세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4 ~ 5년에 한 번 정도다. 하지만 비교적 단기간 동안 지속되는 분명한 추세들이 있다.

대신 내가 사용하는 상승추세(Upward Trend)와 하락추세(Downward Trend)라는 말로 특정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게다가 시장이 상승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가 몇 주일 후에

시장이 하락추세로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강세장이나 약세장에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을 때보다 추세의 반전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전환점을 지나간 후 움직임이 이상하면 위험신호다

투기자가 주식의 전환점을 결정해서 그 시점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전환점을 이용한 아주 단순한 형식의 거래로 수익을 얻기 시작했다. 종종 어느 주식이 50, 100, 200, 심지어 300이 되면 그러한 전환점들을 지난 후에 거의 어김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환점을 이용해 시장의 움직임을 예견할 때는 전환점을 지나간 후 엉뚱하게 움직이면 조심해야 하는 위험신호라는 점을 명심하자. 전환점을 완전히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주식이 전환점을 넘어간 후에 생명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포지션을 정리해야 한다.

지난 2 ~ 3년 사이에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있다고 하자. 최고가는 20으로 상장 당시의 가격 그대로다.

만일 그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어 주식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보통 신고가에 거래될 때 사는 것이 안전하다.

어떤 주식이 주당 50, 60, 또는 70에 거래되다가 20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1 ~ 2년 동안 소폭의 등락을 계속한다고 하자.

그러다 이전의 저가 밑으로 거래된다면 그 주식은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전환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록하고 관찰해야 한다

주가를 기록하고 시간요소를 고려한다면 많은 전환점을 발견해서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환점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요구된다.

시간을 투자해서 기록한 것을 연구하고, 직접 장부에 기입하고, 전환점이 어떤 가격이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며, 전환점의 연구가 개인이 탐색할 수 있는 황금지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직접 판단을 내리고 거래에서 성공하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것이다.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안내로 인해 수익을 얻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

만일 스스로 발견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거래하며 인내심을 발휘하고 위험신호를 지켜본다면, 적절한 사고방식이 길러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권유를 듣고 거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손에 넣어도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장부에 주가를 기록하고 패턴을 관찰하다 보면 주가가 말을 걸기 시작할 것이다. 갑자기 어떤 그림이 형태를 드러낸다.

그 그림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그림은 이전 기록들을 다시 보면서 마지막으로 비슷한 조건하에 있었던 중요한 움직임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그 그림은 신중한 분석과 훌륭한 판단에 의해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가의 패턴은 모든 중요한 움직임을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과거의 움직임에 익숙해지자마자 다가오는 움직임에 대해 정확하게 예상하고 유리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기록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미래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있으며 만일 누구라도 이러한 기록들을 직접 연구하고 계속 기록한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 먼저 손실을 인정하고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연구해 실수의 원인을 잡아내고, 다음에 오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자.

서두르지 말고 피라미딩 전략을 계속 구사하라

일반 투자원칙들에 비춰보면 너무 많은 투기자들이 충동적으로 매수나 매도를 하고 단번에 승부를 건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일이다.

어떤 주식을 500주 매수한다고 가정하고, 처음에 100주를 사는 것으로 시작하자.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하면 다시 100주를 추가매수해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탐색해보는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각 매수가는 반드시 이전의 매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것이다.

이 규칙을 따른다면 내가 아는 어떤 다른 방법보다 유리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곧 판단을 잘했다는 증거다.

나의 투자방식하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가격에서 시장에 들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최초의 매수가격을 의미한다.

주가를 직접 기록하고 지난 몇 주 동안의 움직임을 자세히 연구해서 전환점을 찾는다.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미리 결정했다가 그 가격에 도달하면 거래를 시작한다. 거래를 하고 나서 만일 계산이 틀린 경우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감수할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 이론에 의해 거래를 해서 한두 번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환점에 도달할 때마다 꾸준히 거래를 한다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며 서두르면 안 된다.

자신이 잘못했거나 틀린 행동을 했을 때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판단을 잘못하면 결국 시장이 틀렸다고 말해 줄 것이다.

돈을 잃는 것이다.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 먼저 손실을 인정하고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연구해 실수의원인을 잡아내고, 다음에 오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자. 그것은 그동안 얻은 순이익이다.

시장이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감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발된다.

이것은 잠재의식의 발로다.

과거의 시장 움직임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내면의 신호다. 때로는 일종의 거래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회사 내부자로부터 나온 내부정보는 반드시 경계하라

나는 항상 작은 공책을 지니고 다니라고 권한다.

그 공책에 흥미로운 시장정보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들, 때때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들, 주가변동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들을 기록하자.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는 잉크로 이렇게 써두자. "내부정보를 경계하라. 어떤 정보이든 간에."

투자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아무도 당신에게 거액의 돈을 쉽게 건네주지 않는다.

설령 돈이 땅에 널려 있다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당신 주머니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주식에만 의존하면 거짓 움직임에 속을 위험이 있다.
두 가지 주식의 움직임을 결합하는 방법이 좀더 믿을 만하다

미래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지도

오랜 세월 투기에 전념한 끝에 나는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가격 움직임은 단순히 반복되고 주식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일반적인 가격패턴은 같다.

나는 가격의 움직임을 기록해서 지침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록했다.

그러다가 미래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찾기 시작했다.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최초의 노력들을 돌아보고 나니 당시에 내가 왜 즉시 수확을 거두지 못했는지 이해가 간다.

그 당시 나는 순전히 투기적인 생각을 갖고 중간의 작은 등락을 포착하면서, 언제라도 시장에 들어가고 나오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자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기록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기록들이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

마침내 비밀이 드러났다.

그 기록들은 내게 중간 움직임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대신 중요한 움직임을 예견할 수 있는 패턴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모든 사소한 움직임은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기록한 자료들을 면밀히 연구한 끝에 시간요소가 실제로 중요한 움직임의

접근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발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 사소한 등락을 구성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이었다.

나는 분명한 추세에 있는 시장도 중간에 수많은 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움직임들이 혼란을 야기했다.

더 이상 그런 움직임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다.

나는 무엇이 자연조정이나 자연반등을 구성하는지 알고자 했다.

그래서 가격변동 사이의 거리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우선 1포인트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2포인트, 3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삼아 마침내 자연조정이나 자연반등의 시작을 구성한다고 생각되는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했다.

이 그림을 단순화하기 위해 '미래 주가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지도'라고 이름을 지은 특별한 용지를 인쇄했다.

그 용지는 세로로 여섯 개의 칸에 주식의 가격을 기록하게 돼 있다.

각 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2 차반등,

자연반등,

상승추세,

하락추세,

자연조정,

2 차조정

상승 추세란에는 숫자를 검은 잉크로 기록한다.

다음 왼쪽에 있는 두 칸에는 연필로 숫자를 기록한다.

하락 추세란에는 숫자를 붉은 잉크로 기록하고, 다음 오른쪽에 있는 두 칸에는 역시 연필로 기록한다.

이렇게 상승 추세란이나 하락 추세란에 주가를 기록하면 실제 추세를 알 수 있다.

눈에 띄는 잉크로 쓴 숫자들이 나에게 말을 건다.

붉은 잉크나 검은 잉크를 사용한 칸의 내용을 꾸준히 살펴보면 시장에 대한 틀림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연필로 기록하는 이유는 단지 자연조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다.

나는 30달러나 그보다 비싼 주식이 최고가로부터 약 6포인트 범위까지 반등하거나 조정을 받는 것은 자연조정이나 자연반등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반등이나 조정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추세를 가리키지 않는다.

단지 시장이 자연적인 움직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추세는 반등이나 조정이 일어나기 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움직임만으로는 추세를 파악할 수 없다

한 가지 주식의 움직임만 보고 그 주식이 속한 그룹의 추세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주식 대신에 나는 어떤 그룹에서 두 가지 주식의 움직임을 연결해서 그 추세가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가격으로 삼는다. 그 두 주식의 가격과 움직임을 연결해 소위 중심가격에 도달한다.

개별 주식은 때때로 내가 상승 추세란이나 하락추 세란에 기록할 정도로 큰 폭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한 가지 주식에만 의존하면 거짓 움직임에 속을 위험이 있다.

두 가지 주식의 움직임을 결합하는 방법이 좀더 믿을 만하다.

이처럼 추세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가격의 움직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중심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6포인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기록을 하다가 두 주식의 가격변동을 합친 것이 중심가격이 된다.

이 중심가격은 합계가 12포인트 이상이 돼야 한다.

이때부터 나는 그 포인트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예외는 없다.

만일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기억하자.

내가 기록하는 가격들은 내가 결정한 숫자들이 아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은 실제 거래에서 등록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어느 포인트에서 가격을 기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했다고 말하면 주제넘은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그런 식의 이야기는 진실하지도 않다.

오랜 세월 점검하고 관찰한 후에 내가 기록을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포인트에 가까이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으로부터 중요한 가격변동이 가까웠음을 예상하는 유용한 지도가 가시화된 것이다.

흑자는 성공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 일에서 성공하려면 기록이 행동하라고 말할 때 즉각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물쭈물할 시간은 없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만일 누군가에게 설명이나 확인을 기대한다면 행동할 시간을 놓치게 될 것이다.

주식이 적절히 움직이는데는 항상 이유가 있다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 그 이유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적절한 시간에 행동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다.

시장이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즉시 포지션을 바꿔야 하는 충분한 이유다.

어떤 주식이 적절히 움직이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공식은 중요한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중간의 등락을 이용해서 추격거래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이 공식의 목적은 중요한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며, 중요한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한다면 유용한 공식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공식은 주가가 30달러 이상이고 거래가 활발한 주식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사실도 되풀이해서 말하겠다. 물론 모든 주식의 시장 움직임을 예견할 때 같은 기본적인 원리들이 작용하지만, 저가 주식을 거래한다면 공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주가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지도에 대한 규칙 설명

1. 상승 추세란에는 검은 색 잉크로 주가를 기록한다.
2. 하락 추세란에는 붉은 색 잉크로 주가를 기록한다.
3. 그 밖의 다른 네 칸에는 연필로 기록한다.
4. 자연조정란에 기록하는 첫날 상승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에 붉은 색으로 밑줄을 긋는다.

이것은 상승 추세란에 기록한 마지막 가격에서 처음으로 6포인트 정도의 조정을 받을 때 시작한다.

자연 반등란이나 상승 추세란에 기록하는 첫날 자연 조정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에 붉은 색으로 밑줄을 긋는다.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할 두 전환점이 생겼다.

시장이 이러한 전환점에 가깝게 회복될 때 주가가 어떻게 기록되는 지에 따라 긍정적인 추세가 진지하게 회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움직임이 끝날 것인지에 대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반등란에 기록하기 시작하는 첫날 하락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에 검은 색으로 밑줄을 긋는다.

이것은 하락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에서 처음 약 6포인트 반등했을 때 시작한다.

자연조정란이나 하락추세란에 주가를 기록하기 시작한 첫날에 자연반등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숫자 아래 검은 색으로 밑줄을 긋는다.

이것은 자연반등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으로부터 처음으로 6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작한다.

5) 자연반등란에 기록을 하면서 지난번에 자연반등란(검은 색으로 밑줄 그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3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검은 색 잉크로 상승추세란에 기록을 한다.

자연조정란에 기록을 하면서 지난번에 자연반등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붉은 색으로 밑줄 그은)보다 3포인트 이상 내려가면 하락추세란에 붉은 색 잉크로 기록한다.

6) 상승추세란에 기록하기 시작한 후에 약 6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이 일어나면 자연조정란에 기록하기 시작한다.

자연조정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한, 매일 자연조정란에 기록을 계속한다.

자연반등란에 가격을 기록하다가 약 6포인트까지 떨어지면 자연조정란에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연조정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주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한 매일 자연조정란에 기록을 계속한다.

하락추세란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하락추세란에 기록한다.

하락추세란에 기록을 하다가 6포인트까지 반등하면 자연반등란에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연반등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한 매일 자연반등란에 기록을 계속한다.

자연조정란에 기록을 하다가 반등이 약 6포인트까지 일어나면 자연반등란에 기록하기 시작하고, 상승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올라가면 상승추세란에 기록한다.

자연조정란에 기록을 하다가 하락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낮아지면 하락추세란에 붉은 색으로 기록한다.

마찬가지로 자연반등란에 기록을 하다가 상승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높아지면 자연반등란에 기록하는 것을 중지하고 검은 색으로 상승추세란에 기록한다.

자연조정란에 기록을 하다가 자연조정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6포인트 정도 반등이 일어나면-하지만 그 가격이 자연반등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을 넘지 않는다면-2차반등란에 기록한다. 자연반등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을 초과할 때까지 2차반등란에 기록을 계속한다. 초과하면 다시 한번 자연반등란에 기록하기 시작한다.

자연반등란에 기록을 하다가 6포인트까지 반등이 일어나면-하지만 그 가격이 자연조정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높으면-2차반등란에 기록한다. 그러다가 자연조정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낮아지면 다시 한번 자연조정란에 기록하기 시작한다.

7) 중심가격을 기록할 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단, 개별 주가를 6포인트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12포인트가 기준이 된다.

8) 자연반등란이나 자연조정란에 기록을 시작하면 하락추세란이나 상승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이 전환점이 된다.

어떤 반등이나 조정이 끝난 후에 다시 반대 칸에 적기 시작하고, 이전 칸에 기록한 최고가가 또 다른 전환점이 된다.

두 개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면 이 기록은 다음에 오는 중요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가치를 갖게 된다.

전환점에는 눈에 잘 띄도록 붉은 색이나 검은 색으로 밑줄을 두 번 긋는다.

이 밑줄은 전환점들을 계속 지켜보기 위한 것이다.

전환점에 가까운 가격이 형성되고 기록이 될 때마다 주시해야 한다. 그때부터 기록하는 가격에 의해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9) 하락추세란에 마지막으로 붉은 색으로 기록한 가격 아래 검은 색으로 밑줄을 그은 것은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자연반등란에 기록한 가격 밑에 검은 색 줄을 그을 때, 그리고 만일 그 주식이 다음 반등에서 전환점에 가까이 도달하면 시장이 상승추세란으로 진로를 변경하기에 충분히 강세인지 알아볼 시간이다.

상승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 아래 붉은 색 줄이 그어져 있고, 자연조정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가격 아래 붉은 색 줄이 그어져 있다면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10) 이 모든 방법은 주가가 첫 번째 반등이나 조정이 일어난 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만일 주가가 유리한 방식-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을 회복한다면 이전의 전환점을 통과할 것이다. 즉 개별 주가는 3포인트, 또는 중심가격은 6포인트를 통과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그리고 조정에서 마지막 전환점(상승추세란에서 붉은 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아래로 3포인트 이상 내려간다면- 주가의 상승추세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규칙을 하락추세에 적용해보면 자연반등이 끝난 후에 새로운 가격이 하락추세란에 기록될 때마다 만일 하락추세가 긍정적으로 회복될 경우 이 새로운 가격이 마지막 전환점(검은 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 아래로 3포인트 이상 내려가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거나 반등에서 마지막 전환점(하락추세란에 검은 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 위로 3포인트 이상 올라간다면 주가의 하락추세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반등란에 기록을 하면서 만일 상승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전환점(붉은 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 아래에서 잠시 조정을 받다가 그 가격에서 3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 주가의 상승추세가 끝났다는 위험신호다.

자연조정란에 기록을 하면서 만일 하락추세란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전환점(검은 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 위에서 잠시 조정을 받다가 그 가격으로부터 3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 주가의 하락추세가 끝났다는 신호다.

딕슨 와츠, 제시 리버모어에서 윌리엄 오닐까지

오르면 매수해 수익은 극대화

내리면 손절매 손실은 최소화

주가 예측은 날씨 예측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 노력의 성과는 투자법으로 발전했는데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널리 인정되는 주식 투자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가치투자과 추세 매매법, 기술적 분석이 그것이다.

한국 증권 신문은 이 세 가지 투자법의 핵심과 투자대가들의 계보를 정리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추세매매의 계보

딕슨 와츠(Dickson Watts) → 제시 리버모어 & 버나드 M. 바루크 (Jesse Livermore & Bernard M. Baruch) → 제럴드 M. 로브(Gerald M. Loeb) → 니콜라스 다바스(Nicolas Darvas) & 잭 드레이퓨스 → 윌리엄 J. 오닐(William J. O'Neil) & 현대의 추세매매자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주식시장에서 흔히 듣는 격언이다.

이 격언은 ‘신고가 주식은 무조건 사라’ ,

또는 ‘젊은 시세는 눈을 감고도 사라’ 는 말과도 같다.

이 말들은 추세매매를 잘 설명하고 있다.

추세 매매법은 주가가 일정한 추세(trend)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며 이 추세를 따라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승추세와 하락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다. 주가는 예측할 수 없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수시로 변동하고 등락을 거듭한다.

그러나 추세 매매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주가가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누구에서부터 추세매매가 시작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세매매자들 사이에서 최초의 추세 매매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딕슨 와츠(Dickson Watts)와 제시 리버모어(Jesse Livermore)다.

추세 매매법에 따르면 주가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즉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은 계속 상승하고 하락추세에 있는 주식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물에도 관성이 있듯이 주가에도 이런 관성이 작용해 시장에서도 이런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상승 추세일 때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는 겁이 나서 주식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추세 매매법에 따르면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하락할 때에는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한번 하락한 주식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추세가 무너지면 오랫동안 하향세가 지속되고 횡보하거나 바닥에서 머무는 주식이 매우 많다.

추세매매의 선구자로 꼽히는 딕슨 와츠는 제시 리버모어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로 1878년에서 1880년 사이에 뉴욕면화거래소(New York Cotton Exchange)의 사장으로 재임했으며 그의 시장에 대한 논평은 오늘날의 투자정보매체인 CNBC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함께 추세매매 계보의 맨 앞자리에는 현존하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최고의 투자자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 제시 리버모어가 있다. 그는 5달러로 1억 달러를 벌었으며 ‘추세매매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매매기법은 그가 ‘전환신호’라 부른 시장진입 시점에서 시작된다. 현대의 기술적 분석에서 보자면 박스권의 돌파, 신고가의 갱신, 특정 가격대의 돌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매수단가를 점차 높게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하는 피라미딩 전략을 구사한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을 짧게 끊는 ‘시험전략’을 편다.

그는 오르는 주식에 조금 투자하고 그 다음에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을 늘려간다.

그러나 손실이 나면 즉시 투자를 중단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첫거래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거래는 무모한 짓이다.

결코 손실을 평준화하지 말라.”

이같은 투자법으로 투자를 하면 이익은 커지고 손실은 작아진다.

오늘날의 정석투자로 받아들여지는 손절매의 기초가 되는 주장이다.

추세매매법은 제럴드 M. 로브((Gerald M. Loeb)로 계승되어 더욱 발전된다. 1889년 태어난 그는 성공한 주식중개인이자 금융서적의 저술가였다.

자신의 경력 중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주식에 투자하며 수백만 달러를 관리했다.

또한 가치투자의 대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했다.

그 까닭은 1935년에 그레이엄의 저서 ‘증권분석(The Security Analysis)’ 이 로브의 대표작인 ‘투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The Battle for Investment Survival)’ 라는 책과 함께 거의 동시에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주창했던 것과는 반대로 로브는 자신의 투자스타일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투자 스타일은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추세매매 계보를 잇는 현존하는 투자의 대가로는 윌리엄 J. 오닐(William J. O'Neil)이 있다.

1933년 태어난 오닐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표적인 추세매매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한 뒤 ‘윌리엄 오닐 앤드 컴퍼니’ 를 설립했다.

또 그가 운영하는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IBD)는 미국 서부 지역의 ‘월스트리트 저널’ 로 불리며 개인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의 회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할만한 조사와 투자정보의 원천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오닐은 자신의 ‘CAN SLIM’ 기법으로 유명하다.

이는 주당 분기 순이익, 연간순이익 증가율, 신제품과 경영혁신, 신고가, 수요와 공급, 주도주와 소외주, 기관의 뒷받침, 시장의 방향 등 일곱 가지 주식 매매 원칙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오닐은 ‘CAN SLIM’ 원칙에 따라 5000달러를 투자해 1년 만에 20만 달러로 불렀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저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How to Make Money In Stocks)은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으며 국내에도 소개됐다.

국내에도 추세매매기법은 활발히 소개되고 있는데 시카고 투자자문의 김지민 대표이사는 ‘고점매수 저점 매도’ 를 외치며 추세 매매법의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추세매매법에 따른 투자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이 추세매매가 추격매매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추격매매는 주가가 오른 주식에 전액을 투자하는 방식이지만 추세매매는 일부만 투자하여 추세가 확인된 뒤 다시 추가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추세매매에서는 분할 투자를 강조한다.

물론 손실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같은 투자법에 비춰보면 그동안 한국 투자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투기적인 올인 방식과 몰타기 등에 대한 해법도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내가 초기에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투기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오래전부터 행해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일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며 또한 미래에도 일어날 일이다.

주식시장에서의 바보는 항상 자신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매일 자신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혹은 공매도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알거나 자신의 주식을 현명하게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얻은 교훈을 모두 배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오직 한가지만 존재한다.

그것은 시장이 강세장 혹은 약세장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장이 나타내는 움직임과 동일한 방향으로 거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 날 있을 결투의 입회인이 그에게 물었다.

"총을 잘 쏜다며?"

"글쎄요. 20 걸음 밖에서 와인 잔의 목을 맞출 수는 있어요."

결투할 남자가 겸손한 어투로 대답했다.

"총을 잘 쏘는군."

심드렁해진 입회인이 말했다.

"하지만 만일 그 와인 잔이 장전된 총을 자네의 심장에 겨누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자네는 와인 잔의 목 부분을 명중시킬 수 있겠나?"

내게 있어서 자신의 견해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방법은 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 자신의 실패로부터 배운 점은 자신이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는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일 전진하지 않는다면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손실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반드시 제한해야만 하지만 손실의 제한 때문에 판단력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러왔다.

그러나 손실을 볼 경우에도 경험을 얻었고, 이를 통해 매우 값어치 있는 금기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누적시킬 수 있었다.

비록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완전히 파산하는 경험을 했지만, 금전적 손실이 완전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찾아 올 것이라는 점과 내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전문 도박사는 결코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도박사는 게임 자체에 모든 것이 있는 법이며, 운이란

돌고 돌기 때문이다.

시장의 강세 기조가 확고하고, 소위 언론에서는 "강세조작"이라고 표현하지만 무엇이라고 불리던 간에 그 둘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악재는 증권시장이 약세를 나타낼 때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당시에 감정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다.

매수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비싸다거나 공매도를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싼 주식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하지만 만일 최초의 거래를 한 후 그 거래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는 추가 거래하는 것을 삼가라. 이때는 기다리며 관찰하라

주식투기꾼에게 주어진 임무는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자의 관점을,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자의 관점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이다.

바보 같은 소리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실행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확률에 근거해서 예상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이며,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정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투기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재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한다.

즉 투기꾼은 단지 배우는 학생이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학생인 동시에 투기꾼이어야만 된다.

내가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하며, 최고가를 지불하는 것을 좋아하며, 주식을 공매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가에 공매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공매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노련한 투자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므로 그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향후 전망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는

그 둘 사이의 큰 차이점을 느낄수 없게 되며, 그것은 곧 자신이 백만장자가 아니었을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백만장자가 되면 오직 이전에 자신이 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할 수 있는 것들만 기억할 뿐이다.

꽤 젊고 보통인 사람이 가난했을 때의 습관을 잊어버리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

자신이 한 때 부자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 이유를 돈이라는 것이 욕구를 창출하거나 돈 자체의 증식을 장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나면 지출하지 않는 습관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다음에 지출하던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시장-여기서는 테이프에 기록된 가격이 움직인 경로-을 관찰할 때는 오직 한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방향 즉 가격의 편향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격이라는 것이 그것이 부딪히게 되는 저항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말하자면, 시세란 최소저항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시세는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부터 따르기 마련이므로 저항이 작다면 우선 상승한 후 추가로 주가가 전진하고 난 다음에 하락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추세가 형성된 후 시간이 꽤나 경과했다면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데 절대로 혼돈을 느껴서는 안된다.

열린 마음과 꽤 맑은 시야를 가진 사람에게 추세라는 것은 명확하게 볼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꾼이 자신 앞에 펼쳐진 실제 사실들을 자신의 이론에 맞추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알거나 혹은 알게 되며, 만일 그가 추세의 상태를 알고 있다면 매수와 공매도중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 따라서 매수나 혹은 공매도주문을 할 때 그가 알아야만 하는 것은 추세의 초기단계이다.

투기꾼과 투자자는 다르다. 투기꾼의 목표는 자신의 돈에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상당한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기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 대상의 시세등락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것이다. 따라서 투기거래를 할 경우에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투기적인 최소저항선이다. 또한 투기꾼은 최소저항선이 그 선자체의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때가 자신이 분주해져야만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프로 당구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듯이, 즉 자신 앞에 놓여진 한 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를 내다보며 투기게임을 한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위해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주식시장으로부터 급박하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무엇을 하겠는가?

당연히 그는 희망하는 것이외에는 그 무엇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 그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공평무사하게 시장상황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도출된 합리적인 자신의 견해나 신념을 따르고 지적으로 투기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감내해야만 한다.

비록 돈을 빚진 것은 돈으로 갚을 수 있지만 호의나 친절을 빚지게 된다면 그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게다가 그 같은 도덕적 의무에는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희망이나 요란한 자신의 신조를 외면하고 자리에 꼭 눌러앉아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소리와 상식이 권고하는 바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일단 어느정도 규모의 종자돈만 모아진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테지만, 설령 그 기회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만일 종자돈을 날려버린다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초호화 사치품이나 마찬가지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6 주 동안의 인내였다.

하지만 마침내 상식이 탐욕과 희망을 이겼다!

나는 내 사업이 투쟁이나 경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개인들이나 투기거래를 하는 동료들과 단 한번도 다투었던 적은 없었다.

단지 서로의 견해가 달랐으며 이것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그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는 위대한 수사관이자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과 두 눈으로 확인한 것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실천하는 것을 신뢰했다. 즉, 그에게 다른 사람의 안경은 필요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기차의 철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맞은 편에서 시속 60 마일로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세.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철도의 침목 위를 걸어가겠나? 친구, 나는 옆으로 물러날 걸세. 물론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정도의 현명함과 조심성은 가지고 있다네.

처음에 가졌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수 있었던 것은 내 포지션이 적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장의 추세를 거스르거나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상황에 역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였으며, 그점 때문에 나는 내부자 무리들의 지나친 과신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주식투기의 원칙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미래에도 여전히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화났을 경우에는 청취자들의 귀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냉소적인 문구를 읊곤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최고의 유머를 구사할 줄 알았으며,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사람인 동시에 유쾌하면서도 경구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재미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떤 주식의 대량매각을 목적으로 고안된 주가조작에는 신비하거나 불공정하거나 혹은 정직하지 못한 것들은 없으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작전에 계획적인 허위진술 등이 동반 되지는 않는다.

훌륭한 주가조작은 작은 훌륭한 매매원칙들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타란툴라 독거미가 지네의 등에 뛰어 오른다네 잔인하게 깔깔거리며 말하지 : "내가 이 흉악한 녀석을 독살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녀석이 나를 중독시킬 거라네!"

투기꾼의 주요 적은 무지, 탐욕, 공포와 희망이다. 전 세계의 어떤 법령집이나 거래소의 규칙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동물적 성정에서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냉정한 경제학자나 가슴 따뜻한 박애주의자가 만든 규정들 또한 주의 깊게 짜여진 계획이 사고로 인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손실의 원인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밀정보와는 구별되는 정교하게 조작된 역정보이다.

군중들은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위험으로부터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정당화 될 수 없는 수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호재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누가 처벌하는가?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오래동안 살아남으려면 뭐니해도 Money(자금관리)를 잘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익은 스스로를 돌보지만 손실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

1. 완벽한 것은 없다

-시장은 유기체이며 자기만의 매매기법과 자금관리 원칙이 필요하다

2. 쉬는 것도 투자다

-리버모어는 강제로 휴식했다고 합니다.(모든 포지션 정리하고, 단 시장은 관찰)

-그는 시장이 추세 형성할 때만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3. 현금이 생명선이다

4.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 성공투자자 = 손절매 원칙준수, 즉 손절매원칙=보험 과도 같다.

-리버 모어는 총투자금액의 2%정도가 손절매 기준으로 했슴, 물론 종목수에 기준이 달라짐

ex) 총투자금액 1000 만원, 손절매금액 2%기준시 20 만원

총투자금액을 2 종목에 균등투자시, 한종목 4%(20 만원)가 손절기준

5. 차익관리(사업의 원칙)

- 투자원금의 2 배가 되면 이익금의 50% 인출후 안정자산으로 이동 - 리버모어는 신탁계좌로 이동했으며, 그는 2 번째 파산까지는 파산후 빈털털이가 되었지만 이후 이 원칙을 준수하여 3 번째 파산때는 이전 때보다 타격이 적었슴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법인 피라미딩전략(Pyramiding Strategy)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법은 추세매매법이 핵심이다.

추세매매법의 핵심은 피라미딩전략이다.

직전고점, 직전저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 신저가를 경신하는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고점에 물릴까 두려워 손이 가지 않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제시 리버모어는 끊임없는 시장관찰을 통해 통계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오히려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집중적으로 이익발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이 매매법은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손실의 위험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직전고점을 상황돌파하여 추격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여 이미 돌파한 직전고점대를 하회하는 경우같은 움직임 말이다.

주가가 추세를 이어가기만 한다면 이익은 저절로 일어나므로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주가가 반대로 움직여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당황하기 마련이고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면 손실규모가 커질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매매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 리버모어는 절묘한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어떤 종목을 1 만주를 사기로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해당 종목이 추세를 만들면서 직전고점을 벗어나고 상승한다면 일단 3000 주만 매입한다.

만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3000 주를 추가로 매수한다.

그리고 주가가 더욱 상승한다면 나머지 4000 주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입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만일 처음 3000 주를 매입하고 주가가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5-10%손절매를 한다.

이렇게 되면 손실은 보유금액의 30%에 대한 5-10%의 손실로 한정되고

이익은 60-100%에 대한 무한한 이익이 이루어지므로 ‘이익은 키우고 손실은 줄여라’ 하는 격언에 부응하게 된다.

또한 자금의 30% 규모로 추세를 검증하기 때문에 손실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여유가 있어 시장을 냉정한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여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된다.

리버모어는 분할매입 비율과 횡수, 그리고 최종매입 규모, 손절매 비율에 대해서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리버모어가 강조하는 것은 추세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고 추세에 따라 매매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자금의 100%로 단 번에 매수하거나 미수까지 동원하여 매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매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하락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없고 미수까지 할 경우 하락리스크는 훨씬 가중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다.

또한 분할매수를 통하여 자금관리를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여 평가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물타기를 거듭하면서 하락위험을 가중시키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9번 성공하더라도 1번의 실패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리버모어의 매매법의 핵심은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키우는 것’이다.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법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리버모어의 위대한 점은 바로 시장의 격언이 격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매매법으로 정리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피라미딩 전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매매전략을 통해 심리를 안정시키고, 실패율을 줄이며, 성공률을 높이는 매매법이 있다면 무엇을 더 바랄까? 이것이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불철주야 찾고 있는 것이며 시장을 공부하는 유일한 것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단지 도로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며 만일 나의 이러한 안내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투입한 돈보다 더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매매하는 법>에서 발췌

(주식시장)에 순응하고 고집 피워서는 안된다.

주식시장에서 유사한 가격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참여자들의 인간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1. 4 가지 감정

주식시장참여자들에게는 아래 4 가지 감정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 무지 : 끝없는 공부가 필요하다 -"멍청이나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위한 시장이 아니다" 리버모어는 평생 학습을 하였고 시장에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희망 : 이감정이 손절매를 못하는 원인이다 - 결국은 비자발적 투자자가 되는 원인

- 탐욕 : 천장/ 바닥만 찾는 원인이다 - 리버모어는 1/8 은 포기했습
- 공포 : 미래에 대한 두려움 - 강세장에서 오늘못사면 영원히 못살것 같은느낌. 약세장에서 끝없이 추락할것 같은 느낌

반성) 탐욕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감정은 극복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무지와 희망...

2. 성공적인 투자자의 특성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아래 4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 관찰력 : 객관적인 관찰력이 필요
- 수학적계산능력 : 높은 확률을 선택하는 능력
- 경험 : 실패한 경험이 더 중요

리버모어는 이부분을 의사와 비교하였습니다. 막 인턴을 마친 의사들과 백전노장의 의사들의 차이점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주식 '제대로' 매매 하는 법)

일부 고도로 진화한 유인원의 수컷들은 장미 꽃봉오리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여 암컷을 유혹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아니 자주 장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잊어버린다.

장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무엇인가 궁금하다면 그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줄기와 분리시켜 책상에 10 일만 놓아두어보면 될 것이다.

그리하면 진화하지 못한 유인원이라도 장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서 대박의 환상에 젖어서 부나비처럼 무작정 뛰어든다.

누가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무슨 회사 주식을 사서 끝내주는 수익을 냈다더라.....

훌륭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수익률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답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홀려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글쓴이는 가끔 너무 좋은 차트를 보면 그 아름다움에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본 적도 있다.

하지만 뿌리와 줄기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시장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한다.

‘투기라는 게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매력적인 게임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멍청이나 정신적 게으름뱅이, 감정적 균형이 열등한 사람이나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험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들은 불쌍하게 죽게 될 것이다.’

-제시 리버모어(Jesse Livermore), 주식매매하는법(How to trade in stocks)에서-

이런 말로 조금은 불쾌한 말로 시작하는 한권의 책을 남긴 사나이의 이야기는 오늘날 투자자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

초등학교 중퇴, 14 살부터 증권회사 호가판 주사. 이것이 그의 불꽃같은 삶의 시작이었다. 호가판 주사는 쉽게 말해서 증권 시세표시기의 주가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칠판에 써주는 일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산수의 3년 과정을 1년 안에 끝낼 정도로 수학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역시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4 가지 능력 중에 수학적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일반 투자자가 이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그가 말한 수학적 능력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다.

호가판 주사를 하면서 그는 매일 기록하는 숫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그 숫자를 기억하고 기록한 다음에 숫자들의 움직임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려고 했다.

이는 주가의 패턴을 통하여 수익을 내려는 초기 기술적 분석가들의 방식과 일치했다. 또한 직접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해답을 얻으려는 시도는 그의 투자기법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 리버모어가 거래하던 사설 증권사는 10% 증거금 제도를 택했다. 즉, 보유현금의 10 배까지 매매를 할 수 있던 것이다. 즉, 주식을 매수하고 10%만 하락하면 광통계좌가 된다.

반대로 공매도를 한 후에 10%가 상승해도 마찬가지다. 그가 처음에 거래했던 이러한 사설증권사 거래의 룰은 그의 10% 손절매 원칙으로 이어졌다.

당시나 지금이나 손절매는 투자자의 기본 중 기본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

직접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리버모어는 총 3 번 파산을 경험하였는데 그 때마다 그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20 대에 2 번의 파산을 겪으면서 사설 증권사 시절과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룰에 적응해나가면서 시간요소의 고려를 깨달은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수익을 낼 기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다.

작년쯤에 유가가 오른다는 기사를 보고 GS 건설을 매수한 적이 있었다.

중동 지역의 풍부해진 오일머니로 인하여 건설 붐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GS 건설 주가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나는 손해를 보고 처분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약 1~2 주가 지난 후, GS 건설은 중동지역 건설경기 호황으로 잇따른 수주를 하면서 박스권을 뚫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갔다.

가만히 그 때를 회상해보면 내가 옳은 판단을 했음에도 왜 손해를 보아야 했을까 안타깝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요소와 추세에 대해서 무지했던 내가 그러한 실패를 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중동의 건설 경기로 GS 건설이 수혜를 입을 것을 예견했음에도 차트를 보며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하였다면 하는 후회도 조금은 들지만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와 같은 매매실수를 할 때 절대 변명하지 말라고 말한다.
지금 나는 실책을 저질렀고 그 대가는 마이너스를 보이는 잔고이다.
잔고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실패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투자자가 실패를 가장 효율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이다.

1901년 봄에 그는 2번째 파산을 하게 된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고 그의 생각대로 시장은 움직였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거래량 폭주로 체결이 지연되는 순간 시장은 반발 매수세의 유입으로 그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는 기존에 해온 단기적 주가등락을 이용한 매매는 그의 2번째 파산을 불러온 거래량 폭증으로 인한 체결 지연 등 돌발 사태 한번으로 모든 것을 끝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아주 공평하게도 세상은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으며 가끔은 사악하기까지 한 사람의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절한 위험관리가 필수이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주식시장의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10% 손절매 원칙 외에도 그는 주식계좌 안에 있는 돈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익을 인출해서 직접 만져보았다.

이러한 조치는 그의 인생 말년의 마지막 실패에도 그가 나쁘지 않은 노후를 보내게 하는 소중한 노후자금으로 남았으며 그가 그의 저서를 집필할 만한 생활에 여유를 가지게 하여 일생일대의 역작을 남기는 밑거름이 되었다.

2번의 파산으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월스트리트의 큰곰’이라는 별명과 함께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에게도 3번째 파산이 찾아온다.

외부의 갑작스러운 관심 및 협박, 가정불화, 우울증 등으로 인한 매매의 난조는 결국 월스트리트의 큰 공을 또 다시 도산시키고 말았다.

물론 미리 만들어 놓은 신탁계정으로 전 같은 가난한 생활은 하지 않게 되었다.

투자자가 주식포트 폴리오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 덕목이 주식을 포함한 자기 인생 전반의 포트폴리오이다.

매매일지를 꾸준히 쓰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상당히 상처를 받았던 날 했던 매매가 그렇게 좋은 수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다.

요가, 명상, 종교 활동, 봉사 활동, 체육 및 취미 활동 등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월스트리트의 큰 공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우울증에 대해서도 60 년이 넘는 세월동안 많은 의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주식시장에서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결정과 포트폴리오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의 인생의 포트폴리오는 완벽하지 못했기에 그는 우울증에 시달린 끝에 3 번의 이혼과 권총 자살로 불꽃같은 삶을 마감하였다.

보유한 종목을 정성들여 관리하듯이 우리의 인생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면 우리의 종목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지만 올라갈수록 매수자가 불안에 떨고 괴로워한다면 아무래 대박을 낸다고 해도 그 수익은 전부 병원비나 약값으로 다시 나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장대양봉 일색으로 물들어가는 HTS 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매수자 본인의 장례식 비용을 대기 위해 매물로 나오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투자를 철저히 사업으로 보아왔고 사업이라고 생각했기에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했다.

피터린치가 연평균 29.2%, 워렌 버핏이 24.7% 조지소로스가 34%.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세 자리 수익률을 기대한다.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박에는 그만큼 대가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2004년 삼성전자는 20.85%, 포스코는 25.53%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대 수익률만 정기적으로 기록해도 그는 이견희 회장보다 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이다.

사업은 수익이 나와야 한다. 수익이 날지 안 날지 확신도 없으면서 경기야 어쨌든 무조건 확장을 하거나 업종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 수익이 날만한 사업이 없으면 현재 매장을 관리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이라고 판단되면 그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고 멀리 유럽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시장의 흐름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렇게 멀리서 바라본 객관적인 시각은 시장을 더욱 정확하고 냉정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보다 남의 종목을 보아주는 것이 더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이다.

주식과 결혼하지 말하는 말을 익히 알고는 있으나 내가 보유한 종목에는 웬만큼 나쁜 차트를 보이지 않으면 흑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투자를 사업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은 수익률 관리나 종목선정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습관적 매매와 추세를 무시한 무모한 매매를 넘어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종목을 고르게 되었고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쉬는 합리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엘도라도로 투자자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진화시키고 스스로의 이론을 만들어나갔으며 언제나 배운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월스트리트의 지식’ 이라고 했으나 스스로 언제나 학생이라고 생각했다.

서문에서 어리석은 투자자를 존엄하게 야단치던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끝까지 인내한 투자자를 위해 따스하게 웃으면서 말하고 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단지 도로에 빛을 비추어지는 것이며 만일 나의 이러한 안내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투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

언젠가..... 내가 그의 묘를 찾아가게 된다면 ‘항상 주식시장의 학생을 자처하던 모든 투자자의 스승을 위하여’ 줄기와 뿌리만 있는 장미를 한 송이 놓고 싶다.

가치투자를 신봉한 투자자들은 말년이 좋다, 워렌버핏이 그렇고 코스톨라니가 그렇다. 반면에, 기술투자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이 제시 리버 모어는 세 번의 파산을 겪기도 하고, 개인적으론 가정사가 늘 불화였고, 그 자신의 늪으막에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원칙을 지켰을 때에는 투자에 성공을 했고, 그렇지 않고 경솔한 태도를 보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버림을, 매우 잔혹한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매매일지 속에 투자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지엽적인 데이터에 신경을 집중하면 그야말로 그 데이터는 숫자 이외의 아무 것도 될 수 없음을 제시는 제시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중국엔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얼마전에 읽은 박성득의 투자법과 대비되는 것은 바로 추가매수에 관한 부분이다. 박성득은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견하고 일단 매수를 하고, 이후 그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라고 조언한다, 언제인가는 반드시 올라갈 주식이기 때문에 망설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는 그러한 몰타기야말로 파산으로 이르는 지름길이며 자신이 그러한 몰타기로 인해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말인즉슨, 시장에는 추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세가

하향이면 이것은 당분간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해야한다. 박성득처럼, 추가매수를 할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그 판단이 정확하다면 상관없겠으나 그 판단에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이는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식을 매수 후 가격이 오르면 그 때마다 추가로 매수를 하라고 조언한다. 그 추세를 따라가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것이다. 마지막 매수한 주식은 손해 혹은 동가를 기록하겠으나 그 이전에 매수한 주식들은 반드시 이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00% 확신이 서는 기업은 가격이 하향으로 내려갈 때 추세매수(추격매수가 아닌)를 통해 주식 수를 확보하라는 것이고,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는 기업이라면 추세에 따라 하향시 손절매를 하라는 것이다. 즉, 가치투자를 기본으로 하되, 그 매수와 매도의 시기는 기술투자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10% 손절매 원칙을 강조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상보다는 대응을 잘하라

-강세장에서는 악재가 무시되고, 약세장에서는 호재가 무시됨

- 리버모어의 깨달음 하나.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여 매매의 시기를 결정해야 했지만 시장의 수급상황은 무시한 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만을 고려함.
-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주라
-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라
- 해당업종이 상승하는데 개별주식이 하락하면 문제가 있다는 증거
- 어떤주식에 대해 그 주식의 주가에 다음에 어떤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함.
- 그 견해에 따라 시장이 확증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는 절대 예쌍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 현주가가 \$22~\$28 이고 예상가가 \$50 이라면 \$29 를 넘어설 때 매수하라
- 상승추세에 있고, 주가가 일시적인 조정을 보인 후 신고가를 경신할 때 매수하라
- 평균매수단가를 낮추는 일을 하지 마라
- 수익 중 절반을 인출하여 안전예금상자에 따로 모아두어라
- 만일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부근에서 참여할 수 없다면 그다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
- \$100 돌파시, \$200 돌파시 나타난 움직임이 \$300 돌파시 나타나면 곧바로 매도하라
- 결정한 주식의 주가가 도달할 전환신호를 설정해놓고 실제 도달하면 첫번째 거래를 하여야 할 때임
-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 급증-긍정신호 (but,코스톨라니와 이견)
- 강세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한 후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으며 더욱 급등함
- 주가하락시 절대 추가 매수 마라
- 큰 돈을 버는 것은 전체시장과 함께 할 때만 가능 (가치투자의 개별주식에 집중하는 것과는 이견)
- 성공적인 거래는 인내심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투자원칙을 갖고 거래할 때 실현
- 전환신호 포착법-

이중바닥/박스권돌파/수렴후 돌파/특정가격대 돌파/신고가 기록시/각종 돌파와 동시에 거래량이 커야.

-위험신호-

수렴길이가 몸통보다 두 배 이상일때/ 전일고가보다 높았지만 종가가 더 낮을 때, 이 때 대량거래가 있을 때.

-기업가도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확보함. 현금을 풀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판단할 때 집중투자에 나서게 됨.

-매매일지에 자신이 거래에 진입한 이유와 당시의 차트를 기록. 매도시에도 마찬가지. 후일에 분석을 통해 교정할 수 있음.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법은 추세매매법이 핵심이다.

추세매매법의 핵심은 피라미딩전략이다.

직전고점, 직전저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 신저가를 경신하는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고점에 물릴까 두려워 손이 가지 않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제시 리버모어는 끈임없는 시장관찰을 통해 통계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오히려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집중적으로 이익발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이 매매법은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손실의 위험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직전고점을 상향돌파하여 추격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여 이미 돌파한 직전고점대를 하회하는 경우같은 움직임 말이다.

주가가 추세를 이어가기만 한다면 이익은 저절로 일어나므로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주가가 반대로 움직여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당황하기 마련이고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면 손실규모가 커질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매매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 리버모어는 절묘한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어떤 종목을 1 만주를 사기로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해당 종목이 추세를 만들면서 직전고점을 벗기고 상승한다면 일단 3000 주만 매입한다.

만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3000 주를 추가로 매수한다.

그리고 주가가 더욱 상승한다면 나머지 4000 주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입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만일 처음 3000 주를 매입하고 주가가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5-10%손절매를 한다.

이렇게 되면 손실은 보유금액의 30%에 대한 5-10%의 손실로 한정되고 이익은 60-100%에 대한 무한한 이익이 이루어지므로 ‘이익은 키우고 손실은 줄여라’ 하는 격언에 부응하게 된다.

또한 자금의 30% 규모로 추세를 검증하기 때문에 손실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여유가 있어 시장을 냉정한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여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된다.

리버모어는 분할매입 비율과 횡수, 그리고 최종매입 규모, 손절매 비율에 대해서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리버모어가 강조하는 것은 추세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고 추세에 따라 매매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자금의 100%로 단 번에 매수하거나 미수까지 동원하여 매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매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하락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없고 미수까지 할 경우 하락리스크는 훨씬 가중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다.

또한 분할매수를 통하여 자금관리를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여 평가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물타기를 거듭하면서 하락위험을 가중시키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9 번 성공하더라도 1 번의 실패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리버모어의 매매법의 핵심은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키우는 것’ 이다.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법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리버모어의 위대한 점은 바로 시장의 격언이 격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매매법으로 정리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피라미딩전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매매전략을 통해 심리를 안정시키고, 실패율을 줄이며, 성공률을 높이는 매매법이 있다면 무엇을 더 바랄까?

이것이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불철주야 찾고 있는 것이며 시장을 공부하는 유일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곰’, ‘추세매매의 아버지’, ‘단돈 5 달러로 1 억달러를 번 사나이’ 이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투자자로 꼽히는 제시 리버모어(Jesse

Livermore) 이름 앞에 붙는 각종 수식어들이다.

1877 년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리버모어는 14 세 때 보스턴의 한 증권회사 시세판 담당자로 일하며 주식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우연히 주식매매를 하게 된 그는 의외의 수익을 얻게 됐다.

1 년 뒤 회사에서 받는 급료보다 투자 수익이 많아지자 리버모어는 이때부터 아예 전업투자자로 변신했다. 당시 나이에 비해 많은 돈을 벌자 ‘꼬마 노름꾼’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한때 증권사 출입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리 버모어의 재산은 가출할 당시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단돈 5 달러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1929 년 미국 대공황 시절 1 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벌어들였다.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약 20 억달러, 원화로 2 조원 가까운 금액으로, 당시 그가 거둔 수익률은 8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당시 그의 투자방법은 공매도였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방법으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시세차익이 커지게 된다. ‘월스트리트의 곰’이라는 별명은 그가 매수보다는 공매도를 선호하는 이른바 약세장 투자가였기 때문에 얻게 된 것. ‘곰’은 증권가에서는 ‘약세장’을 상징한다.

리버모어는 투자자들에게 항상 “무지·공포·희망·탐욕을 경계하라”고 말했다. 반면 ‘관찰력, 기억력, 수학적 계산능력, 경험’을 주식 투자자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정신적 특징으로 꼽았다. 또 시장은 틀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말고 철저히 순응하라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그에게 주식투자에 있어서 최상의 무기는 ‘인내’였다. 스스로 매매시점을 정한 뒤 단기 차익 욕구를 억누르고, 주가가 급등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또 주식거래에 성공했을 때는 수익 중 절반을 인출해 예금에 따로 모아두는 자금관리 원칙도 성공의 비결이었다.

리버모어의 말년은 불행했다. 1940 년 권총자살로 생을 마친 그에게 남은 것은 1 만달러가 채 안 되는 부동산뿐이었다. 하지만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법은 이후 많은 주식 고수(高手)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제시 리버모어 어록

반드시 지켜야할 중요한 세가지 매매법칙

- 1.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라. 추세선을 정하라. 근본적인 추세를 확인하라
- 2.매수전략을 개발하라. 시장을 조사하라. 처음에는 조금만 분할매수해서 시장을 시험해 보라. 서두르거나 충동적으로 한꺼번에 사지마라
3.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큰흐름을 기다려라.대박은 큰 물결을 타고 온다

리버모어의 모든 원칙은 인간의 습성에 반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손실은 신속하게 잘라내라.포지션을 처분해야 할 적당한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수익에 전념하라.

주도주는 시장의 선지자다 주도주를 매매하라. 이들 주도주의 고점이 상향돌파되고 신고가를 기록할 때 사야한다. 저가주는 성장잠재력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저가라고 할수없다. 주식시장은 순환한다. 영원히 오르는 법도 없고 영원히 내리는 법도 없다. 그러나 시장이 일단 방향을 바꾸면 멈추기 전까지 새로운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투기자자에게 인내가 필요한거야. 내이론의 핵심은, 추세전환점에서만 매매한다는 거야. 인내심을 가지고 추세전환점을 기다리면 항상 수익을 낼수 있단다

"모든주식은 사람과 같아서 저마다 성격이 있고 특색이 있다. 공격적이거나 과묵하고, 들떠있거나 신경질적이고, 번덕스럽거나 지루하고, 직접적이거나 논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없다. 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주식을 관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좀더 예측이 가능해진다 "

자금관리 요령

- 수칙 1. 돈을 잃지마라.
2. 손절매의 한도를 설정하라 (10%손절매원칙)

3. 현금을 남겨둬라

(기억해두어라. 영리한 투자자는 항상 인내하고, 언제나 현금을 남겨둔다는 사실을)

4.선불리 수익을 실현하지 마라 (수익을 내고 있을때 나는 결코 불안해 하지 않는다)

5. 현금으로 수익을 실현하라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수익의 50%정도는 따로떼어 보관하는것이 좋다 특히 원금이 투배로 붙어났을때)

제시 리버모어가 제안한 73 가지 투자 법칙

1. 주식시장처럼 역사가 자주 되풀이되는 곳도 없다
2. 아무도 당신에게 거액의 돈을 쉽게 건네주지 않는다
3. 주식투자는 나태한 자, 한탕주의자를 위한 게임이 아니다
4. 종목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5.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먼저 깨달아야 한다
6. 주식투자로 급전을 마련해보겠다는 건 만용일 뿐이다
7. 세계대전조차 주식시장의 장세를 막을 수 없다
8. 투자라는 게임은 수학적 계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9. 판단의 옳고 그름은 실제 돈을 걸어야 알 수 있다
10. 매일 또는 매주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
11.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화내지 마라
12. 내부자정보가 기아, 전염병, 흉작보다 더 위험하다
13. 주식투자의 최대 적은 무지, 탐욕, 두려움, 희망이다
14. 자동차를 살 때보다 덜 생각하고 재산을 거는 건 무모하다
15. 마지막이나 처음에 8분의 1을 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16. 주식을 한꺼번에 사는 건 시세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다
17. 투자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원칙 위에서 운용하라
18. 경솔과 욕심 대신 건전한 상식과 냉철한 사고를 가져라
19. 인간적 약점은 투자자에게 있어 최대의 적이다
20. 주식시장에선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도 필수다
21. 투자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22.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훨씬 더 앞을 내다보라
23. 투자자는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하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24. 공부와 노력 없이 무에서 유를 얻으려 해선 안 된다
25. 출발부터 유쾌하게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해야 한다
26.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며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
27. 주식의 전환점을 결정해서 그 시점의 움직임을 해석하라
28. 움직임이 시작되는 심리적 시간에 투자 게임을 시작하라
29. 시장이 적절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30. 참을성을 갖고 거래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1. 성급하게 매수하면 결국엔 후회할 일이 생기고 만다
32. 최초의 거래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나름의 지침은 필수다
33. 최소저항선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라
34. 주가와 씨름을 하거나 이유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35. 큰돈을 걸기 전에 일단 작은 시험 비용부터 걸어보라
36.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매도해서 손절매를 해야 한다
37. 첫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식은 물타기하지 마라
38. 강세장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큰돈을 벌여준다

39. 매일 소폭의 등락에서 수익을 내려고 탐하지 마라
40. 분명한 추세에 있다면 중간의 사소한 변동들은 무시하라
41. 추가 매수는 이전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
42. 시장이 활발하다면 서둘러 작은 이익을 취하지 말자
43. 많이 상승했다고 팔고, 많이 하락했다고 사는 게 아니다
44. 강세장이나 약세장에 있다고 선불리 예단하지 마라
45. 추세와 맞서려 하지 말고, 반드시 추세와 동행하라
46. 강세장에는 강세론을,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을 취하라
47. 장세를 확인하고 강세장이라는 가정하에서 거래를 하라
48. 위험신호가 있으면 즉각 행동을 취해 손실을 줄여라
49. 비정상적 조정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신호로 봐야 한다
50. 비밀정보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
51. 어떤 정보이든 간에 내부정보를 반드시 경계하라
52. 주도주에서 돈을 벌 수 없다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53. 제한된 수의 산업들과 그 산업들의 주도주들을 연구하라
54. 정보를 주는 사람은 정보의 질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55. 비밀정보에 현혹돼 거래를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56. 추세를 거슬러가는 주식은 가능한 한 매수하지 않는다
57. 자신과 자신의 판단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58. 시장의 소문들은 투자자가 방어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다
59. 주식시장의 호구들은 남들이 하는 말만 늘 연구한다
60. 어떤 주식이 계속 하락하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61. 차트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62.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후에 계좌에서 인출을 하라
63.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떤 거래도 해선 안 된다
64. 주식으로 돈을 벌수록 절약하는 습관을 지켜내자
65. 평가이익을 현금으로 바꿀 기회를 지켜보아야 한다
66. 아내와 아이를 주식시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라
67. 수익을 은행에 저축할 때까지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68. 계좌의 평가이익은 말 그대로 평가이익일 뿐이다
69. 주식시장에서 밥오는 항상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0.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호주머니뿐 아니라 영혼도 괴롭다
71. 판단이 잘못됐다면 손실을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라
72. 매도를 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청산하라
73. 팔고 싶을 때가 아니라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한다